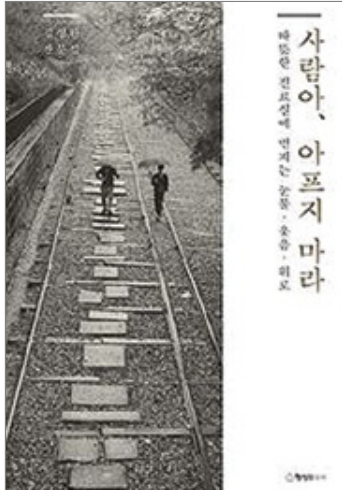




▶▶▶ 사람아, 아프지 마라

김정환 지음/행성비 펴냄/1만3천원

김정환 을지대 교수(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가 페이스북에 올린 소소한 일상을 모아 책으로 펴냈다.

‘사람아, 아프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 책은 진료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만남속에서 아픈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따뜻하고 미소 짓게 하는 이야기들이다.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여러지고 약해지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지만 이 책에는 평범한 우리 이웃과 저자가 진료실에서 만나 울고 웃으며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나눈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다.

통명스러운 말투와 달리 깊은 정으로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는 어르신, 어린 딸의 수술을 앞둔 초조함으로 자신의 엄마에게 독한 화풀이를 쏟고 마는 마음 약한 젊은 엄마, 나이를 속이고 연애 중이라며 슬그머니 효과 좋은 약(?)을 요구하시는 엉뚱한 어르신, 이런저런 본인의 일상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던, 말 못 하는 환자와 단 둘이 사는

외로운 어르신, 조폭으로 오인 받은 교수님 환자 등과의 조우에서 저자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써 한마디 더 건네고, 그러다 눈물도 찍어내고, 함께 웃기도 하고, 혼자 무안해하기도 한다.

그리고 저자 자신 역시 그들을 통해 무한한 에너지를 전해 받는다.

저자는 “단지 누군가에게 그 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실 다를 것은 없습니다. 진료실을 찾은 분들의 삶이 특별히 유난스럽거나 생활이 유별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우리 사는 모습과 같습니다. 진료실에서 펼쳐지는 우리 삶의 풍경을, 환자들과 저의 마음속에 오롯히 남은 소중한 이야기들, 그리고 싶었나 봅니다”라고 말한다(☎ 02-326-5913).

▶▶▶ 생활속 의학용어의 비밀

김경환지음/자유아카데미 펴냄/1만5천원

김경환 연세대 명예교수가 ‘생활 속 의학용어의 비밀’을 출간했다. 이 책은 지난 2011년 ‘의협신문’에 연재했던 ‘의학용어 숨겨진 이야기’들로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지만 간과했던 용어의 숨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핸디캡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과거 물물교환 방법에서 유래됐고, 식당으로 쓰이는 레스토랑은 원래 강장 효과를 가진다는 수프에서 나왔으며, 면역은 병역을 면제 받거나 기피하는 데서 나왔다.

곰팡이의 이름 중에는 천주교 주교가 쓰는 성수채의 모양에서 따온 것도 있고, 성경과 고환과 난(蘭)이 같은 어원을 가진다. 심포지엄은 함께 술을 마신다는 뜻이고 임질이라는 질병은 정자가 빠져나간다는 뜻을 지닌다.

이 책은 이런 저런 의학 용어의 뿌리와 그 용어가 만들어진 배경을 근간으로 70여개 주제를 일반인도 알기 쉽게 다루고 풀어낸다.

이 책의 말미에는 부록으로 의학용어 접두어와 접미어 목록을 실었다. 의학 용어는 대부분이 접두어·어간·접미어 등의 조합으로 구성돼 있어 기본적인 구성 단어의 뜻만 이해하면 새로 접하는 용어이더라도 뜻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저서 ‘의학용어에 숨겨진 이야기 사전’과 편저 ‘이우주의 약리학 강의’ 4·5판 등을 펴냈다(☎ 031-955-1321).





▶▶▶환자의 시선

무라카미 기미코 역음/메디캠퍼스 펴냄/1만5천원

‘의료인의 시선’과 ‘환자의 시선’은 다를까 같을까.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말을 듣는 일에서 시작한다.

일본의 의료저널리스트 무라카미 기미코가 엮은 ‘환자의 시선’이 출간됐다.

이 책에는 일본 월간지 ‘간호관리’에 연재된 ‘환자의 시선, 의료관계자가 환자 및 환자 가족이 되다’에 실린 글들이 옮겨져 있다. 흔한 질병에 걸려 환자가 되거나 환자 가족이 된 의사·간호사·간호교육·교육자·의료 관련 행정가·저널리스트 등 20명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필자들은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병에 걸려 경험한 것들을 돌아보고, 자신이 의료관계자의 입장에서라면 간과했지만 환자나 가족의 입장에서 비로소 절감했던 것들을 풀어놓는다.

의료인의 말과 행동이 환자와 가족에게는 어떻게 비치며, 그것이 환

자와 가족의 말과 행동이나 판단에서 드러나는 불안감과 어떻게 엿갈리지도 보여준다.

편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의료관계자들이 환자나 환자의 가족이 됐을 때의 경험을 깨닫는다면 오늘도 병원을 찾는 환자나 가족의 삶과 심정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추천사를 통해 “의료인들은 전문성을 갖췄기에 환자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업무에 임한다. 그들 자신이 환자나 보호자가 되면 평소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의 개선방향을 찾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동료 의료인들 사이에서 대변자 역할뿐만 아니라 병원의 업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02-723-3114).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

지안 도메니코 보라시오 지음/동녘사이언스 펴냄/1만4천원

유럽 완화의료학계를 이끌고 있는 지안 도메니코 보라시오 스위스 로잔의대 교수가 쓴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이 출간됐다.

완화치료의학은 남은 삶이 제한된 환자가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하며 치료하는 분야다.

이 책은 죽음을 앞둔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사가 앞으로 겪게 될 다양한 선택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비현실적인 치료 가능성을 내세워 환자를 위험과 부작용에 노출시키는 대신 완화 치료의학학을 통해 존엄성을 지키며 죽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네덜란드·스위스·벨기에·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발생한 존엄사 관련 논쟁과 임상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하나씩 짚어나간다.

1부 ‘존엄사의 의미’에서는 독일의 법적 상황과 임상사례를 근거로 자율적 죽음에 관한 논쟁에서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지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능동적·소극적·간접적 존엄사, 자의임종 보조, 안락사 등의 다양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한다.

이어 2부 ‘스스로 선택하기의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논쟁에서 거의 배제됐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임종 순간의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죽음의 자율성에 대해 다룬다.

저자는 “완화치료학과 임종간호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죽음을 앞둔 환자가 더 이상 이윤추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031-955-3000).

